

高靈지역 洞祭의 전승양상과 특징

김 재 호*

차례

- I. 서론
- II.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 III. 동제의 지역별 전승양상
- IV. 고령지역 동제의 특징
- V.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 고령지역의 동제를 현지 조사한 것으로 그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대상신의 성격이 산신이다. 산신형 동제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소백산 줄기를 따라 분포하며, 古形에 속한다.

둘째, 제관선정방식이 農旗나 神竿를 이용한 신 내림을 이용한다. 이 역시 생기복덕을 가리는 유교식과 비교할 때 고행에 속한다.

셋째, 동제의 핵심적 행제 과정은 유교식의 讀祝告祀形이 중심을 이룬다. 그런 점에서 고령지역의 동제는 풍물과 무속 그리고 유교가 뒤섞인 混合形 동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돼지를 주요한 희생으로 하는 산신제의 전형을 이룬다. 산신을 위한 獻食까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다섯째, 犧牲 이외의 제물에 건어물의 사용이 대중을 이룬다. 이는 동제뿐만 아니라 조상제사에서 드러나는 고령지역 제사문화와 맥락을 같이한다.

*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강사

여섯째, 서부 산간지역과 중동부 평야지역 사이에 동제의 양상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는 제관선정방식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산간지역일수록 신 내림의 전승이 약하고, 반대로 평야지역에서 강하다. 그리고 과거로 소급할수록 신 내림이 강했고, 현대로 올수록 약화된다.

고령지역에는 古形의 문화들이 많이 전승되고 있다. 대가야의 유적들을 포함하여 구비문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품의 유무형문화재들이 많다. 동제 역시 이러한 문화적 전통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高靈, 共同體信仰, 洞祭, 大伽倻, 山神

I. 서론

洞祭란 모듬살이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마을 단위의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마을 수호신에게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비는 의례행위라고 할 수 있다.¹⁾ 마을단위에서 행하는 제사이기에 마을제사 혹은 동고사 등으로 불리며, 제사의 대상신이 무엇인가에 따라 산신제, 산제, 서낭제, 당산제, 당제, 골매이제 등 매우 다양한 명칭들이 존재한다. 민속학에서는 이들을 민간에서 행하는 공동체 단위의 신앙형태라고 하여 마을공동체신앙으로 분류한다. 마을공동체신앙에는 동제 이외에 기우제, 별신굿, 풍수신앙 등이 있다. 동제는 定期的인 연례행사인 반면에, 기우제나 별신굿은 不定期的으로 특별히 행하는 것이며, 풍수신앙은 마을의 형성과 관련되어 일상적인 생활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제의의 시기성을 언급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대표적인 마을공동체신앙인 동제는 마을의 역사와 함께 하는 것으로, 부

1) 강성복, 「조선후기 충청지역의 동제 연구—동제 관련 촌락자료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면.

족국가시대의 祭天儀禮에 해당하는 부여의 迎鼓, 고구려의 東盟, 예의 舞天, 마한의 蘇塗 신앙 등에서 그 연원을 찾는 경우들이 많다.²⁾ 마을의 역사를 부족국가시대까지 소급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많지만 제천의례 역시 공동체신앙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간주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동제는 문화사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다. 특히 제도권의 기록문화 중심이 아니라 구전문화 중심의 기층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역사와 정체성 등을 논함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동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역사학이나 민속학은 물론이고 국문학이나 인류학, 사회학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는다. 오늘날에는 학문 연구만이 아니라 지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실용적 차원에서도 동제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 글 역시 고령이라고 하는 지역의 문화적 특징 내지는 正體性을 동제라고 하는 전통문화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주지하듯이 고령은 대가야 문화의 전통이 강한 곳이다. 왕릉을 비롯한 대가야의 유적들을 비롯하여 우륵의 가야금 등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가야 문화는 고령 사람들의 인식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것은 대가야 멸망과 관련된 다양한 설화들이 오늘날까지도 오롯이 전해져오고 있는 데서 확인된다. 신라에 저항하기 위한 성을 쌓던 도인을 미인계를 동원하여 죽였다는 예동산성 설화나, 신라군에 대항하다가 전사한 마량장군이 죽은 지 삼일 만에 거북군사를 이끌고 신라군을 공격한다는 거북바위 설화는 그 단적인 예다.³⁾

이렇듯 고령은 신라의 복속에 저항하는 대가야 문화를 지역 정체성으로

2) 박호원, 「한국 공동체 신앙의 역사적 연구—동제의 형성 및 전승과 관련하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17면.

3) 김재웅, 「고령 지역의 설화의 전반적 고찰」, 『고령지역의 역사와 문화』, 고령문화원·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97, 155~157면.

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한 저항의 정신은 조선시대까지도 줄곧 이어진다. 조선건국에 반기를 들고 항전하였던 李美崇 장군과 관련한 지명전설이나 관련설화 등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미송산 지역에 광포하는 구비문학들은 그 단적이 예다. 신라복속에 대항하던 대가야인들의 저항정신이 이미송 장군 관련 설화에서도 그대로 묻어난다고 하겠다. 보는 이에 따라 다소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있겠으나, 대가야의 신라복속, 그리고 이미송 장군의 항거 실패 등 굵직한 시대의 아픔들이 고령문화의 기저를 형성한 것은 아닐까 추측된다. 동제 역시 이러한 역사와의 관련 속에서 고령지역 기층민들의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한 예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하지만 고령지역의 동제나 민간신앙 등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설령 있다하더라도 아주 단편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진행하는 데는 시작부터 많은 한계가 있다. 관련 자료를 모으는 작업부터 시작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이 글은 일차적으로 현지조사를 통해 고령지역 주민들이 오늘날까지도 전승시키고 있는 동제의 양상을 확인하며, 그 성과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 전통문화의 특징과 정체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1. 선행연구 검토

동제는 한국문화의 뿌리를 찾는 데 유용한 것으로 여겨 민속학에서 상당히 일찍부터 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근대학문이 태동하는 시기인 일제강점기부터 한국학자들은 물론이고 일인학자들의 관심을 끈 것도 바로 이 동제였다. 그런 경향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것은 최근 동제 관련 학위논문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

석된다.4) 특히 오늘날 동제연구는 거시적인 차원의 한국문화의 뿌리나 원리 등을 찾는 것에서 벗어나 그 폭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좁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동제에 대한 학계의 많은 관심과 연구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지역의 동제를 이해할 수 있는 조사보고서나 연구 성과들은 많지 않다.

고령군의 동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문헌자료는 대단히 미약한데, 『고령군지』(1996)에서는 ‘山祭·洞神祭’를 세시풍속에 포함시켜 간략히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 내용은 개진면 양전리 뒷산인 점림산에서 모신 산신제 축문의 전문을 소개하며, 동제에 농기와 농악대가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적고 있다.

다음은 『한국의 마을제당』(국립민속박물관, 2004)이다. 이는 1967년 당시 문교부소속 문화재관리국에서 실시한 〈전국부락제당조사〉 결과를 책으로 편찬한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 고령군 24개 마을에 대한 설문지가 확보되어 있다.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2005년 정월 대보름에 전국의 139개 마을의 마을신앙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때 우곡면 봉산리 새가지 마을(鳥枝洞) 산제와 쌍림면 용2리 당산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그 보고서가 『한국의 마을신앙』 하권(2007)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고령군 동제의 특징이 성글게나마 경북지역 내에서 개괄적으로 논의된 적이 있다. 앞서 언급한 『한국의 마을제당』 제8권 경상북도편(국립민속박물관, 2004)에 실린 이기태의 「경북의 마을제당과 제의의 특성」이 그것이다. 이 연구는 후에 「경상북도의 마을신앙의례 분포와 문화권역」(『민속학연구』, 국립민속박물관, 2007)으로 보완된다. 이에 의하면 고령군의 마을신앙

4) 대표적인 예가 박호원, 위의 논문; 이관호, 「내포지역 마을신앙의 전승과 변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김도현, 「강원도 영동 남부의 고을 및 마을신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강성복, 위의 논문 등이 될 수 있다.

은 지형학적으로는 봉화, 풍기, 영주, 문경, 김천, 성주와 함께 경상북도 서북부 분지지역의 유형으로 분류되며, 명칭상으로 보아 동제류가 가장 많고, 行祭 시기는 음력 정월 보름이 주를 이루며, 대상신은 주로 산신인 것으로 정리한다. 지리적으로 보아 고령군은 경상북도 남서 남단에 위치하지만 마을 신앙의 양상은 소백산맥의 분지지역들과 동일한 문화권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⁵⁾ 이렇듯 고령군의 동제는 아직까지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로는 고령군 지역의 동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2. 연구방법

고령지역 동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차 자료 확보가 가장 관건이다.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다만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승하는 동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지주민들의 제보를 통해 대상신과 제당, 제관 및 제관선정방식, 제물과 행제방식, 영험당, 변화양상 등을 조사하였다.

고령은 지리적으로 보아 크게 두 지역으로 대별된다. 서부 산간지역과 중동부 평야지역이다. 지리적 특성상 고령군의 서부지역은 가야산(1430m)의 연봉에 해당하는 북두산(688m), 미송산(734m), 불당산(460m), 만대산(688m) 등이 경남 합천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낙동강을 경계로 하여 대구광역시와 달성군, 창녕군 등과 인접하고 있다. 그리고 군의 가운데를 낙동강의 지류에 해당하는 회천과 그 상류들이 흐르고 있다.⁶⁾ 따라

5) 이러한 주장은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데, 본 논의의 결론에서 재론하고자 한다.

6)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고령문화사대계① 역사편』, 2008.

서 西高東低의 지리적 형태를 띠며, 서쪽은 산간지역이 주를 이루고, 중동부 쪽은 평야지역이 많다. 이러한 지형은 동제의 형성 및 전승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지조사는 2010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이루어졌다. 전체 조사대상 지역은 11개 마을인데,⁷⁾ 이들은 면사무소의 안내로 현재 동제가 전승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들 지역 중에서 우곡면 봉산1리 새가지 마을은 별도의 현지조사 없이 안동대학교 손우승이 2005년 1월에 참여 관찰한 자료를 참고하였으며,⁸⁾ 쌍림면 용2리 반룡 마을은 현지조사와 김재웅의 조사보고서를 함께 참고하였다.⁹⁾ 현지조사를 실시한 지역들과 주요제보자 그리고 조사일시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¹⁰⁾

29~30면.

- 7) 고령군은 1읍 9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 자연마을 11개 지역이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적절한 비교는 될 수 없으나 2006년 문경시의 경우, 1시 2읍 7면에 143개 마을에서 동제가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고령군의 동제 전승은 대단히 미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문경시의 동제 전승현황은 안태현, 『문경의 마을공동체신앙』, 문경새재박물관, 『문경민속지-민속신앙』, 민속원, 2007 참조.
- 8) 손우승, '우곡면 봉산리 새가지 마을(鳥枝洞) 산제', 『한국의 마을신앙』 현장조사보고서 하권, 국립민속박물관, 2007, 26~32면.
- 9) 김재웅, '쌍림면 용2리 당산제', 『한국의 마을신앙』 현장조사보고서 하권, 국립민속박물관, 2007, 21~25면.
- 10) 해당지역의 동제 정보는 모두 이들 제보자의 제보사실에 기초한 것이며, 향후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는다.

〈표 1〉 현지조사 실시지역

지역 구분	조사지	주요 제보자	조사일시
서부 산간지역	덕곡면 노2리 서우재	여보현(73세)	2010.4.14
	쌍림면 平地里	이동훈(75세)	2010.4.15
	쌍림면 月幕里	곽재현(65세), 곽재만(65세)	2010.4.16
	쌍림면 용2리 盤龍	이정태(69세)	2005.2.18~23 (김재웅 조사) 2010.4.16 (필자 조사)
중동부 평야지역	우곡면 봉산1리 새가지		2005.1.24 2005.2.22~23 (손우승 조사)
	우곡면 봉산2리 봉양	정광식(81세), 이기영(72세), 박성덕(80세), 박점술(81세)	2010.4.15
	우곡면 포1리 갯골	이정국(75세), 손병문(52세)	2010.4.15
	우곡면 포2리 후동	곽상조(78세), 오상제(79세)	2010.4.15
	개진면 양전2리 內洞	이시동(73세), 진봉길(53세)	2010.4.16
	개진면 省里 松谷	이성말(63세)	2010.4.16
	다산면 蘆谷里	나진관(63세), 나영환(44세)	2010.4.16

Ⅲ. 동제의 지역별 전승양상

1. 서부 산간지역

1) 대상신과 제당

덕곡면 노2리 서우재에서는 주산에 해당하는 2곳의 제당에서 제사를 지낸다. ‘상생기’와 ‘하생기’의 두 제당이 있는데, ‘하생기’에 대한 제사를 더 성대하게 지낸다. 신체는 모두 소나무이며, 산신제라고 부른다.

쌍림면 평지리 역시 산신제라고 하여 마을의 주산인 天里堂山에 제당이 있다. 신체는 아릅드리 고송이다. 산신당이 있는 곳의 지형은 움푹한 분지를 이루고 있어 닭이 울어도 들리지 않을 정도이다. 보호수로 지정된 마을입구

의 고목에도 제를 올리는데, 재산을 마을에 맡기고 후사 없이 죽은 사람에 대한 제를 함께 한다.

쌍림면 월막리에서도 마을제사는 2곳에서 모신다. 하나는 산제로서 제당은 주산인 청룡산에 있으며, 다른 한 곳은 마을 입구의 당산목이다. 당산목에는 축문 없이 단잔만 올린다. 당산목은 수구막이와 흡사한 것으로 인식한다. 동제는 20년 전에 소멸되었던 것을 2003년 문화관광부 선정 '월막리 달맞이 문화역사마을' 사업 때 다시 복원한 것이다.

쌍림면 용2리 반룡 마을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원래는 마을 뒷산 청룡등에 윗당산과 아랫당산, 그리고 동네 입구에도 동네당산이 있었다. 하지만 너무 멀고 번거로워서 1970년대에는 3년 정도 지내지 못하고 단절된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마을에 재앙이 있어서 복원하게 되었는데, 그 때 윗당산에서 아랫당산으로 제당을 바꾸어 지냈다. 이후 다시 변화를 거듭하여 현재는 마을입구의 제단에서만 모신다. 마을입구의 제당에는 '礪山祭壇'이라고 새긴 돌비석과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서부 산간지역의 동제의 대상신은 대부분 산신임을 알 수 있다. 제당은 전통적으로는 2개 이상의 堂體系를 이루었던 것으로 여겨지나, 마을사회의 변화에 의해 제당의 숫자도 축소된 경우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쌍림면 용1리로 3곳의 제당이 1곳으로 축소되었는데, 이는 다시 뒤에 언급되겠지만 제당의 축소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동제 전반에 걸친 변화였다. 특히 마을 사정과 관련하여 단절과 복원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가 컸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들 지역의 주민구성은 동성촌락의 성격이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덕곡면 노2리 서우재에는 성주 배씨, 쌍림면 평지리는 전주 이씨와 창원 황씨, 월막리는 현풍 곽씨, 용2리 반룡은 여주 이씨가 마을의 주요 성씨이다. 이들 지역은 동성촌락으로 유교적 관념이 강했으며, 그것이 동제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 제관 선정 및 금기사항

덕곡면 노2리 서우재 마을은 정월 10일에 생기복덕을 가려서 제관을 선출한다. 선출된 제관은 이날부터 찬물로 목욕재계하고, 상가나 출산한 집을 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돼지고기나 소고기 등 비린 것을 절대 먹지 않고, 담배까지 끊는 등의 금기를 행한다. 그리고 제관 집은 물론이고 동네 가가호호 황토를 뿌리고 솔가지를 친다. 산신제를 지내는 동안에는 동네에서 싸움은 물론이고 큰 소리도 내지 못하며 조용하고도 엄숙한 가운데 동민들이 정성을 다한다.

쌍림면 평지리 마을의 제관선정 방식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한 때는 동수 아래서 열 하룻날 매구를 쳐서 서낭대를 통한 신내림으로 한 적도 있으며, 생기복덕을 가려서 한 적도 있다. 최근에는 노인회에서 지명을 하는 방식인데, 동민들 중에 깨끗한 사람을 눈여겨두었다가 정월 열 하룻날 동회를 열어 정한다. 지명을 받은 집은 “지성껏 다하겠습니다!”라는 복명과 함께 제관이 된다.

쌍림면 월막리는 마을 노인회에서 합의에 의해 초헌관을 선임하고, 아헌관과 중헌관은 마을 젊은 사람들 중에서 선임한다. 초헌관은 마을을 대표하는 어른이라는 상징성이 부여되는데, 지난 한 해 동안 굶은 일을 겪지 않은 깨끗한 사람으로 신의와 덕망 있는 어른들 중에서 추대형식으로 선임한다. 선임된 초헌관은 비록 제를 모시는데 힘이 들긴 하지만 동네의 큰 어른이 된다는 상징성으로 인해 제관으로 선임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쌍림면 용2리 반룡에서는 생기를 가려 제사 3~4일 전에 제관과 축관을 함께 선정한다. 하지만 제사 당일에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면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여성이나 어린 아이 모두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청룡동의 당산에서 산제를 모실 적에는 제관과 축관만이 제사를 秘儀的으로 주관하였으며, 제관 선정은 풍물을 치는 등 점쟁이 방식의 신내림을 통해 하였고, 축문

도 없었다.

제관선정방식은 어느 지역과 비슷하게 1970, 80년대 이후 이농현상으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무엇보다도 동제를 주관할만한 젊은 층의 인구가 줄어들어서 동제의 유지 전승 자체가 많이 어려워졌다. 그런 과정에서 단절과 복원의 과정을 거친 예들이 많으며, 대체적으로 간소화되거나 時俗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바뀌어 갔다. 과거에는 신내림을 통해 제관을 선정하던 경우들이 생기복덕을 가리는 방식으로 바뀌거나 마을의 사정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쌍림면 평지리와 용2리가 그 예가 된다. 선정된 제관들은 각종 부정을 피하고 목욕재계 등을 통해 정성을 드리는데, 이러한 금기를 ‘정신드린다’고 하는 점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다.

3) 제물 및 제일

덕곡면 노2리 서우재에서는 당별로 제물을 달리 한다. 상생기 제당에는 藻藿, 백설기와 함께 밥을 지어 올리며, 하생기에는 온 돼지를 잡아서 속 내장은 빼내고 통째로 올린다. 제주는 탁주를 사용한다. 하생기의 돼지 희생이 제물의 중심을 이룬다.

쌍림면 평지리에서는 음력 정월 보름날 子時에 동제를 지내는데, 열나흘 날 밤 10시 쯤 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모시기 시작하여 첫닭이 울어야 제당에서 내려온다. 제물은 예전에는 돼지 온 마리를 제당에서 잡았으나 요즘은 돼지머리로 대신한다. 제수는 ‘건장보기’를 통해 하는데, 조기, 조각(해물의 일종), 나물 3가지, 그리고 탕을 준비한다. 하지만 요즘은 탕을 마련하지 않는다. 제를 다 모시고 나서는 돼지머리는 ‘철룽’ 뒤에 두고 내려온다. 산짐승들이 먹으라고 하는 것으로 산신당 뒤쪽에 둔다.

쌍림면 월막리 역시 제수는 가정의 기제사와 흡사하며 편, 탕 등이 포함된다. 예전에는 제당에서 제사 당일에 돼지를 잡아서 올렸으나 요즘은 간소

화되어 돼지머리와 앞다리를 사서 올린다. 제사를 마치면 돼지머리는 창호지에 싸서 제당의 옆 뒤쪽에 묻어 산신에 드리고 내려온다.

쌍림면 용2리 반룡 마을은 6·25 전후에는 음력 선달그믐에 제사를 모셨는데, 어둠 속에서 당산까지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아 정월 대보름으로 바꾸었다. 제수는 돼지머리를 비롯하여 피문어, 합자(홍합), 조기, 과일류, 나물류가 사용되며, 제주는 감주를 사용한다. 다른 마을과 흡사하게 제사를 마친 후 돼지머리의 뼈는 산신께 드린다.

이렇게 볼 때 제물의 특징은 돼지를 사용한다는 것이며, 그것도 온 마리를 生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犧牲 이외의 제수는 피문어, 합자 등의 '건장'을 보아 마련하는 점이 공통된 특징이다. 제일은 오늘날은 음력 정월 보름날 첫시로 통일되어 있으나, 예전에는 음력 선달그믐에도 지냈다는 점이 특이하다. 특히 동제의 희생은 상징적인 부위를 반드시 산신께 드린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그래서 비록 오늘날 돼지 온 마리를 희생으로 사용하지 않고 돼지머리 등으로 간소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는 산신께 헌식하는 관행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4) 제의방식

덕곡면 노2리 서우재 마을에서는 상생기에 간단히 먼저 고하고, 하생기에 돼지 희생을 올리고 독축고사와 소지를 올린다. 축문은 소지를 올리는 동안에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읽는다. 제사에 여성들은 일체 참여하지 않으며, 제복은 따로 있지 않고 축관만이 흰 옷을 착용한다.

쌍림면 평지리에서는 예전에는 제관 1명, 보조원 1명, 축관 1명 모두 3명이 제당에 올라갔지만 요즘은 젊은이들이 한문으로 된 축문을 제대로 읽을 수 없어 2년 전부터 축관을 없애고 오직 정성으로만 지내고 내려온다.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산을 오를 때는 중간에 쉬거나 힘들다고 하는 등의 일절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행위는 '정신'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를 마친 후 첫답이 올면 준비해 간 징을 마을을 향해 올린다. 산신제를 잘 모셨다는 것을 마을에 알리는 의미이다. 산신제를 지낼 때는 제관만이 정신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도 정신을 들인다.

쌍림면 월막리에서는 먼저 산신께 독축고사 방식으로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내려와 집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제수를 준비하여 당산목으로 향한다. 당산목에게는 單齋으로 제사를 올리며 돼지머리도 마련하지 않는다.

쌍림면 용2리 반룡에서는 제관이 유교식 독축고사 방식으로 동제를 주관하지만 제사 참여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면 동민 누구나 제사에 참여하여 소원을 빌 수 있다. 이는 과거 제관과 축관만이 참석하던 방식에서 변화된 것이다.

제의 방식에서 정숙한 유교식 독축고사 방식으로 동제를 지내는 것은 공통적이다. 하지만 한문으로 된 축문의 독축에 어려움이 있어 정성으로 대체 되는 경향 또한 있으며, 쌍림면 용2리 반룡에서 보다시피 주민들의 동제 참여 폭도 넓어져서 동제가 秘儀形에서 開放形으로 바뀌고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덕곡면 노2리 서우재 마을에서처럼 축문을 소지 사르기와 함께 반복하여 여러 번 낭독하는 것은 독특하다고 하겠다.

5) 영험담 및 변화양상

덕곡면 노2리 서우재에서는 1980년 즈음 동제를 지내지 말자는 의견이 한 주민에 의해 제기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제안을 한 사람 집에서 그날 원인모를 불이 나서 온 동네가 혼이 났다. 그래서 그 뒤로 그런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게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동제가 유지되고 있다.

쌍림면 평지리 마을은 비록 전승이 중단된 예는 없으나 제관선정 등에서 여러 변화를 겪었다. 월막리 마을은 20년 전에 소멸되었던 것을 2003년 문

화관광부 선정 ‘월막리 달맞이 문화역사마을’ 사업 때 복원하였으며, 새롭게 전승의 기틀을 잡은 상태이다.

용2리 반룡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제당의 축소와 제관선정방식의 유교화, 축문 작성, 비의형에서 개방형으로의 행제방식 변경 등이 그 예다. 단절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것은 마을에 병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단절 후 마을 이장이 병으로 죽고, 마을 청년들 7~8명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의 우환이 겹쳐 결국 동제를 부활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洞神에 관한 영험담은 동제의 전승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동신의 위력을 드러내는 것이 영험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험담이 풍부할수록 동제의 전승력도 비례하여 큰 것으로 여겨진다.

2. 중동부 평야지역

1) 대상신과 제당

우곡면 봉산1리 새가지 마을은 당산제를 모시며, 산제와 용왕제로 이루어진다. 산제당은 마을 뒤 대봉산 중턱에 있으며 소나무 군락과 당집으로 이루어져 있고, 용왕제는 동네 공동우물에서 지낸다. 우곡면 봉산2리 봉양 마을은 서낭제를 지내는데 2곳에서 지낸다. 뒷당산은 바깥 서낭으로 남성이고, 동네 안에 있는 서낭은 안 서낭이다. 안 서낭은 ‘수골맥이(수구맥이)’로 주민들은 인식한다. 신체는 바깥 서낭은 수명이 오래된 도토리 나무이고, 안 서낭은 오래된 버드나무였다. 하지만 안 서낭은 마을 안 도로확포장사업 때 베어지고 없는 상태이다.

우곡면 포1리 갯골 마을은 뒷당산과 앞당산 2곳에서 당산제를 모신다. 뒷당산은 남성이고 앞당산은 여성이며, 뒷당산에 제사를 먼저 지낸다. 당목의 수종은 괴목이다. 우곡면 포2리 후동 마을은 산제를 지내는데, 제당은 현재

동네 가까이 산 아래에 비석을 세워 표시하고 있다. 원래 산제당은 2곳으로 뒷산 주산 정상에 윗당산과 아랫당산이 있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주민들의 노령화 등으로 산제를 모시기 어려워 주민들이 합의하여 1996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¹¹⁾

개진면 양전2리 내동 마을은 보호수로 지정된 마을회관 들머리의 괴목을 당목으로 섬긴다. 괴목은 할배 즉 남성인데, 예전에는 할매 즉 여성에 해당하는 왕버들 당목이 1곳 더 있었다. 왕버드나무는 1970년대 중반 새마을사업 때 없었다. 개진면 생리 송곡 마을은 동네 우물가의 회나무를 동신으로 섬긴다. 주민들은 동신을 ‘회목님’이라고 부른다. 이전에는 마을 아래 들머리 쪽에 동신목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해체해 버렸다. 그러자 마을에 여러 재앙이 닥쳐 새로 모신 것이 현재의 회나무이다.

다산면 노곡리의 당산제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뒷산 주산 정상에서 소나무를 대상으로 모시는 산제이고, 그 다음은 소저 덕성궁의 룡에서 지내는 ‘宮祭(덕성궁에게 지낸다는 의미)’, 그리고 마을입구에서 지내는 거리제가 있다. 궁제는 조선 세조의 셋째 아들인 德城君의 妃이자 壽城人 尼순손의 장녀인 小妣 德城宮의 룡에 지내는 제사이다. 산제는 동신이자 수호신으로써 마을의 주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궁제는 마을 출신의 큰 인물에 대해 지내는 조상제사의 성격이 강하고, 거리제는 마을 입구의 거리에서 지내는 것으로 교통사고 방지나 외부에 나가있는 마을민의 안녕을 비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2당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남녀 혹은 상하의 개념으로

11) 이에 관한 사실은 산제단 비문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비문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本洞 山神祭는 元來 主山 頂上에 位置한 堂山에서 除歷 正月十五日을 期하여 洞全體의 安寧과 無事함을 洞守護神에 祈願하는 年例行事로 現今에 이르고 있으나 農耕社會가 産業社會로 急進展함에 따라 靑壯年層의 急激한 都市移住라는 課題를 낳는 反面 居住民의 老齡化로 모든 行事를 正常 推進키 어려우므로 主山嶺 頂上에서 行事하는 堂山祭도 元老분을 中心으로 相議討論한 後 여기 精潔한 場所를 選擇 山神祭壇을 設置하고 本 祭壇에서 山神祭를 드리고자 합니다. 丙子七月 日 後洞 郭漢潑書 ”

인식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진면 생리의 경우는 다소 예외적인 형태이고, 다산면 노곡리는 당산제에 역사가 아주 오래된 인물신을 모시고 있는 점은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2) 제관 선정 및 금기사항

우곡면 봉산1리 새가지 마을에서는 당산에서 대잡이가 서낭대를 잡고 풍물을 치면 어느 순간 대가 흔들리면서 신이 내린다. 신이 내린 것을 감지한 대잡이는 서낭대를 떼고 마을로 향하는데, 서낭대가 축관과 제관을 점지해준다. 축관과 제관에 선정된 집은 간단한 주안상을 차려 서낭님을 맞이한다. 금줄은 축관집은 왼새끼를, 제관집은 오른새끼를 치는데, 제관집이 축관집보다 그 지위가 높기 때문이다. 제관집과 공동우물에는 禁土를 하는데, 양쪽에 일곱 무더기씩을 놓아 七星이라 부른다.

우곡면 봉산2리 봉양 마을 역시 제관의 선정은 서낭님이 직접 행한다. 마을의 대잡이가 정월 10일 경에 당산의 서낭님께 '매구(농악풍물)'을 쳐 고하면서 대를 내린다. 그러면 서낭대가 제관의 집을 찾아간다. 그 집은 거부하지 못하고 제관을 맡게 된다. 축관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축관과 제관은 동네 입구에 금줄을 치고 '금토(황토)'¹²⁾ 또한 곳곳에 뿌린다. 제관과 축관 집 앞에는 금토도 뿌리고 금줄도 친다.

우곡면 포1리 갯골에서는 예전에는 서낭을 내려서 제관과 축관을 선정하였으나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동장과 농촌지도자가 날을 받아와서 주민들의 생년월일과 비교하여 제관을 선정한다. 우곡면 포2리 후동 역시 과거에는 서낭을 내리거나 冊曆을 이용해 생기복덕을 가려 제관을 선정하였으나 마을 인구의 축소와 고령화로 인해 오늘날에는 연령순으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한다.

12) 잡귀잡신의 근접을 막아준다는 점에서 황토를 '금토'라고 한다.

개진면 양전2리 내동 마을도 예전에는 대내림을 통해 제관을 정했으나 요즘은 가가호호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맡는다. 당산제 때 금기는 대단히 엄했는데, 제관들은 선정 이후 제사를 마칠 때까지 동구 밖 출입을 할 수 없었으며, 제사를 모시고 난 후라도 동네에 객사나 불상사 등이 생기면 정성을 제대로 드리지 않은 것으로 여겨 제를 다시 지냈다고 한다. 그리고 제사 또한 아주 엄숙한 가운데 지냈는데, 만일 제사 중에 동네 닭이 울거나 개가 짖으면 부정하다고 여겨 그 짐승을 곧 잡아버렸다고 한다. 개진면 생리 송곡 마을은 동신을 새로 모신 이후 특별한 제관선정이 필요 없이 마을 대표가 나서서 준비를 하게 되며,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다.

다산면 노곡리에서는 예전에 대내림을 통해 제관을 선정했는데, 풍물을 격렬하게 몰아치고 대잡이가呪言을 하면 신이 내려 대가 저절로 선정될 제관 집들을 향하였다. 대내림을 통해 제주, 제관, 축관 집을 선정하였으며, 사용할 우물까지 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바뀌어 대잡이 없이 이장이 당연직 제관이 되며, 9개 반의 반장들과 마을개발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등이 제사를 주관한다. 금기는 마을제사가 끝난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되는데, 대잡이는 '석 달 가리기', 제관들은 '일 년 가리기'를 하였다. 대잡이나 제관을 했던 사람들은 짧게는 석 달에서 길게는 한 해 동안 상가 출입을 하지 않는 등 행동을 조심한다는 것이다.

제관선정방식은 개진면 생리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대내림을 통해 신이 제관을 선정해주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이는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로서 향후 집중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대내림을 통한 제관선정은 이 지역의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령지역 동제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3) 제물 및 제일

우곡면 봉산1리 새가지에서는 제물로 메와 미역국, 수돼지 1마리, 각종 해산물(명태, 오징어, 문어, 홍합, 해삼, 석어), 과일류, 나물류 등을 사용한다. 제주는 막걸리이다. 돼지는 반드시 수돼지를 사용하며 창자나 피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않고 모두 제물로 올린다. 서낭제사는 정월 대보름 자시에 모시며, 제사 전날에 제물 준비를 마치면 마을 청년들이 풍물을 쳐서 서낭님을 당집에 모신다. 당집으로 올라갈 때는 공동우물에 들러 용왕님께 인사를 드린다.

우곡면 봉산2리 봉양 마을의 동제 제물에는 반드시 돼지머리가 필요하다. 이외에는 삼탕(명태, 문어, 홍합, 오징어, 자반조기),¹³⁾ 해삼(건해삼), 과일(밤, 대추, 사과, 배), 탁주(농주), 미역 등이 사용된다. 포1리 갯골 마을에서는 오과(밤, 대추, 감, 배, 사과)와 삼탕(피당이문어, 합자-수염이 있는 열합, 명태), 조기, 백문어 등을 제물로 사용하며, 특히 돼지가 가장 중요하다. 돼지는 잡아서 반으로 나누어 두 당산에 올리며, 생고기로 사용한다. 몸통은 좌우 반으로 갈라서 뒷당산과 앞당산에 나누어 쓰며, 머리의 위턱부분은 뒷당산에 그리고 아래턱은 앞당산에 올린다. 제당에 올라갈 때 제물은 함지에 담아서 반드시 앞으로 메고 간다. 포2리 후동 마을도 대동소이한데, 일반제사와 흡사하게 삼탕이 주를 이루며, 반드시 돼지를 잡는다. 잡은 돼지는 제사를 모시고 난 뒤 머리부분의 턱은 떼어서 제단 옆에 묻는다.

개진면 양전2리 내동에서는 요즘은 음력 선달 그믐날 밤 10시에 마을제사를 모시고 회관에서 음복을 하는데, 이전에는 정월 보름에 하였다. 이는 외지에 나가있는 주민들이 많아 정월 보름 제사를 모시기에는 사람이 너무 부족하여 出鄕인들이 고향을 많이 찾는 선달 그믐날을 제일로 바꾼 것이다.

13) 삼탕은 모두 건해산물로 구성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문어는 '피문어' 혹은 '피떼기'라고도 부른다.

이는 제사 때 동민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소지를 올리던 풍습이 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 개진면 생리 송곡 마을의 당산제는 예전에는 오월 단오에 행하다가 새로 '희목님'을 모신 후에는 정월 보름에 한다.

다산면 노곡리 마을의 당산제는 정월 보름 첫시에 산제를 올리기 시작하여 보름날 아침에 거리제를 지내는 것으로 끝이 난다. 산신께 드리는 제물은 생돼지이다. 돼지 중에서도 수돼지이다. 제당까지 돼지를 몰고 가는데, 목에 줄을 묶어 길만 인도하면 돼지가 스스로 제당까지 갔다고 한다. 덕성궁의 룡에 모시는 제사는 일반 기제사와 흡사하다. 산제에 모신 돼지를 삶아서 제물로 하며, 그 외에 건어물과 과일, 탕, 시루떡을 준비하고, 제주로는 청주를 사용한다. 메는 짓지 않으며, 건어물로는 문어, 가오리, 대구포, 마른 명태, 합자, 오징어, 실과 등을 사용하고, 산신께 바쳤던 돼지의 내장을 삶아 탕으로 사용한다. 건어물을 시장에서 마련하는 것을 '건장 본다.'라고 하며 건장을 봐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도 동일하다. 하지만 오늘날은 생돼지를 사용하지 않으며, 온 마리를 마을에서 잡아 3등분하여 산제와 궁제 그리고 거리제에 나누어 사용한다. 그 중 산제에는 돼지머리를 꼭 사용한다.

제물에서 드러나는 공통점은 희생으로 돼지 1마리를 통째로 올린다는 것과 그 외의 제물로 건어물이 많이 이용된다는 것이다. 제물의 1순위는 돼지이며 제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건장보기를 통한 건어물을 제물로 이용하는 점 또한 독특하다. 이는 기제사 방식과 흡사한 것으로 대내림의 제관선정방식과 함께 고령지역의 동제가 갖는 주요한 특징으로 여겨진다.

4) 제의방식

우곡면 봉산1리 새가지 마을 서낭제에서는 독축을 소지를 올리는 동안 계속한다. 제사가 끝나면 돼지머리와 제물의 일부를 조금씩 떼어서 당나무 아래에 묻고 메도 얹어 놓는다. 용왕제는 서낭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새벽 3시 무렵에 다시 모신다. 공동우물 1곳에 제물을 진설하고 제관만이 간략하게 용왕제를 올린다.

우곡면 봉산2리 봉양에서는 유교식의 독축고사를 행하며, 제관과 축관 2가구의 부부 4명이 제물을 마련하여 지낸다. 제물은 당산제와 거리제가 똑같다. 축문은 한문을 한글로 옮겨 적은 것으로 동네 소지를 올리는 동안 여러 차례 반복한다. 축문을 소지와 같은 것으로 인식한다. 제를 마치고는 돼지머리의 위턱은 당산에 묻고 아래턱은 삼거리에 묻는다.

우곡면 포1리 갯골에서는 제관과 축관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 5~6명이 함께 동제에 참여한다. 먼저 뒷당산 제사를 모시고 집에 돌아왔다가 제물을 다시 준비하여 앞당산에 간다. 당산제를 마칠 때까지 제관이나 축관 모두 일절 음복을 하지 않으며, 제를 모두 마치고 돌아와서 한다. 제물에 대해서 간을 본다거나 맛을 보는 일 또한 절대 없다.

우곡면 포2리 후동에서는 산제를 모시고 난 후에 거리제를 지낸다. 산제에서는 돼지머리의 턱 부분을 제단 뒤편에 남겨둔다. 거리제에서는 반드시 해삼과 돼지발 4개를 준비하는데, 앞발 2개와 해삼은 동네 안쪽 경계에 묻고, 뒷발 2개와 해삼은 다시 동네 입구 경계에다 묻는다. 이는 돼지의 앞발과 뒷발이 복을 불러들인다는 믿음에서 그렇게 한다.

개진면 생리 송곡 마을의 동신제는 다른 마을과 비교할 때 아주 독특하다. 동신목과 정자 주변으로 3가지의 걸개글을 정성껏 써서 걸어놓고 동민들이 함께 제사를 올린다. 이 걸개글을 동신축문으로 인식하는데, 걸개글의 내용은 2010년의 경우 가운데에 “歲庚寅正月安過太平”을, 좌측에는 “光風霽月”, 우측에는 “立春大吉 建陽多慶”을 써 붙인다. 가운데의 글귀는 좌우보다 약간 높게 올려서 건다.

다산면 노곡리 당산제는 유교식으로 지내며, 헌관들이 차례로 잔을 드리고 마지막에 소지를 올린다. 마을에 거주하는 성씨들의 모든 소지를 올려준

다. 산제를 지내고 나면 돼지의 머리와 꼬리는 잘라서 종이에 싸서 제당 한 곳에 묻고 덕성궁의 룡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보름날 새벽 해가 뜬 무렵에 제사의 마지막인 거리제를 마을 입구에서 지낸다. 덕성궁의 궁제와 거리제에는 소지를 올리지 않으며, 제사방식은 산제와 동일하다. 축문은 각 제사별로 따로 있다.

제의 방식은 양당체계의 동제가 대부분이라 행제방식 역시 선후로 나누어 지며, 주로 먼저 행하는 제당의 신격이 높다. 먼저 행하는 제사는 동네의 주신에 해당하며, 뒤에 행하는 제사는 대개 거리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주요 제물인 돼지는 주신인 산신이나 당신, 서낭신 등에게 먼저 봉헌한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반드시 신에게 헌식한다. 그것도 양당의 신 위계와 희생이 갖는 부위별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게 헌식을 행한다. 돼지 머리카, 턱(윗턱과 아래턱), 발(앞발과 뒷발) 등의 구분은 모두 특정 의미들을 담고 있다. 제의진행방식은 유교식의 독축고사가 지배적이며, 개진면 생리의 축문을 대신하는 걸개글은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산면 노곡리의 덕성궁의 궁제 역시 마을의 역사와 관련하여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하다고 하겠다.

5) 영험담 및 변화양상

우곡면 봉산1리 새가지에서는 산제를 정성들여 모시지 않으면 동티가 난다고 한다. 어느 해 돼지 온 마리를 올리는 것이 어려워 일부만을 올렸다가 그 해 마을의 젊은이가 죽은 적이 있었으며,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돼지 온 마리를 제물로 올린다. 그리고 제사를 잘못 모시면 가뭄이 든다고도 한다.

우곡면 봉산2리 봉양에서는 새가지 마을과 흡사하게 예전에는 풍물을 드세게 쳤으나 오늘날은 젊은이들이 많지 않아 그렇게 못한다. 포1리 갯골 마을 역시 상황은 비슷하며, 특히 수박농사의 도입으로 마을제사에 대한 정성

이 많이 약해졌다. 제물이 간소화되고 제관들의 금기가 크게 완화되었으며, 동신에 대한 믿음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은 개진면 양전2리 내동 역시 비슷한데, 현대 산업화 과정 속에서 이농현상이 심화되고 마을인구가 줄어들면서 대단히 엄했던 당산제가 많이 간소화되었다.

개진면 생리 송곡 마을의 동신목은 소원을 잘 들어주는 것으로 주민들은 인식하는데, 관련 이야기가 대단히 많이 전한다. 교통사고의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동신목에 굿을 하자 제보자가 나타나 진짜 범인을 찾아주었는가 하면, 주민들이 일으킨 각종 차량사고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탈이 없던 예가 한 두 번이 아니고, 기도를 드려 득남의 행운을 얻은 예들도 있는 등 주민들이 동신으로부터 입은 은혜는 부지기수다. 이런 배경 속에서 다소 변화된 제의방식이긴 하나 동제의 지속성이 비교적 강한 편이다.

다산면 노곡리 마을은 '26姓받이'로 불릴 만큼 많은 성씨와 인구가 모여 사는 대촌이지만, 도둑 없는 '대문 없는 동네', 장애자가 태어나지 않는 '장애자 없는 동네', 오염이 없는 '공장이 없는 동네'인 것을 주민들은 큰 자랑으로 여긴다. 그것은 모두 산신님과 덕성궁의 보살핌이라 믿는다. 특히 덕성궁 룡의 별초 문제는 매 해 어떤 누구도 입에 담지 않지만 동네의 어떤 묘소보다 가장 먼저 깨끗하게 별초가 된다고 한다.

대체적으로 오늘날까지 동제가 지속되고 있는 곳은 동신의 영험이 큰 곳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것은 마을사회가 직면하는 현대 도시산업화 과정의 정도와도 맞닿아 있기도 하다. 마을을 관통하는 큰 도로가 없고, 도시와의 거리가 멀며, 지리적으로 자연재해의 부담이 큰 곳일수록 동제의 전승력도 상대적으로 강하다.

IV. 고령지역 동제의 특징

이상으로 고령군 지역 5개 면의 11개 마을에서 오늘날까지도 전승되고 있는 동제들을 서부 산간지역과 중동부 평야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현지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상신의 성격과 제당, 제관선정방식과 금기, 제물의 종류와 제일, 행제 방식, 영험담 및 변화양상 등을 중심으로 재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1. 대상신의 성격과 제당

동제의 대상신으로는 산신이 두드러진다. 명칭상의 분포는 산신제 3곳, 동신제 3곳, 당산제 4곳, 서낭제 1곳이다. 하지만 이들 명칭이 동제의 성격이나 신격까지 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산신의 성격이 당산이나 동신 혹은 서낭 등으로 표현된 것으로 여겨진다.¹⁴⁾

신체는 소나무가 가장 많다. 이는 산신이 동제의 가장 주된 대상신인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구체적으로는 소나무 4곳, 괴목(느티나무) 3곳, 도토리나무 1곳, 회나무 1곳, 비석 2곳의 분포를 보인다. 비석은 오늘날 제당을 옮기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본래는 주산의 소나무가 제당이자 신체였던 것이다.

14) 동신은 명칭상 43종이 되며, 계통상으로 분류하면 天神·日神·星神·山神·樹神·地神·水神·邪鬼·人神 9계통이 있다고 하였다. 김태곤, 『한국민간신앙연구』, 집문당, 1987, 21면.

〈표 2〉 고령지역 동제 현황

조사지		동제명칭	신체	제당	제관선정	제물	제일	제의 방식	진송 상태	
서부 산간 지역	덕 곡 면	노2리 서우재	산신제	소나무	2곳 상생기 하생기	생기복덕	조과, 백설기, 밥, 생돼지	정월 보름	독축 고사	지속
	쌍 림 면	평지리	산신제	노송	2곳 산신당 거리당	노인회 지명 예전 신내림	건강보기, 돼지머리	정월 보름 첫시	독축 없음 예전 독축 고사	지속
		월막리	동신제	느티나무	2곳 산제당 당산목	초현관 노인회 선출	기제사와 동일, 돼지 머리와 앞 다리	정월 보름	독축 고사	2003년 복원
	용2리 반룡	당산제	비석	1곳 당산제단	생기 가림	피문어, 합자, 조기, 감주, 돼지머리	정월 보름	독축 고사	1970년대 3년 단절	
중동부 평야 지역	우 곡 면	봉산1리 새가지	당산제	소나무 우물	2곳 산제당, 용왕당	풍물 대내림	메와 미역국, 수 돼지 1마리, 각 종 해산물, 과일 류, 나물류	보름 자시	독축 고사 (+풍물)	지속
		봉산2리 봉양	서낭제	상수리 나무	2곳 당산, 수구매이	풍물 대내림	삼탕(명태, 문 어, 홍합, 오징 어, 자반조기), 해삼(건해삼), 과일(밤, 대추, 사과, 배), 탁주 (농주), 미역, 돼 지머리	보름 자시	독축 고사 (+풍물)	지속
	우 곡 면	포1리 갯골	당산제	괴목	2곳 뒷당산, 앞당산	생기복덕 예전 대내림	오과(밤, 대추, 감, 배, 사과), 삼탕(피덩이문 어, 합자수염이 있는 열합, 명 태), 조기, 백문 어, 돼지	보름 첫시	독축 고사 (+풍물)	지속
		포2리 후동	산제 (+거리제)	비석	1곳 예전 2곳 윗당산, 아랫당산	연령순 예전 대내림	삼탕, 돼지 1마 리	보름 첫시	독축 고사	지속

조사지		동제명칭	신체	제당	제관선정	제물	제일	제의 방식	전승 상태	
중동부 평야 지역	우곡면	포2리 후동	산제 (+거리제)	비석	1곳	연령순	삼탕, 돼지 1마리	보름 첫시	독축 고사	지속
					예전 2곳 윗당산, 아랫당산	예전 대내림				
	개진면	양전2리 내동	당산제	괴목 (+왕버들)	1곳	가구 순번제	일반제사방식	선달 그믐	독축 고사	1980년대 7-8년 단 절
					예전 2곳 할배 당산, 할매당산	예전 대내림		정월 보름		
	생리 송곡	동신제	회나무	1곳	동민 대표	돼지머리, 시루 떡, 조율이시, 막걸리	정월 보름 오월 단오	결개 글	1997년 새로 시작	
				제당 바뀜	(마을 이장)					
다산면	노곡리	당산제 (산제 + 궁 제 + 거 리제)	소나무 덕성공의 릉	3곳	마을 이장과 반장 및 개 발위원	돼지 1마리, 건어물(문어, 가 오리, 대구포, 명태, 합자, 오 징어), 과일, 탕, 시루떡, 청주	정월 보름 첫시	독축 고사	지속	

당 체계는 2당 구조가 가장 대표적이다. 2당 6곳, 1당 4곳, 3당 1곳의 분포를 보이는데, 1당 4곳 중 3곳(쌍림면 용2리 반룡, 우곡면 포2리 후동, 개진면 양전2리 내동)은 예전에 2당 체계였다. 2당 체계는 결국 主神과 副神의 관계로 드러나는데, 부신은 주신과의 관계에서 남녀 혹은 상하의 관계를 맺으면서 신격이 낮은 용왕제나 거리제의 성격을 띤다. 이러한 성격은 서부 산간지역보다는 중동부 평야지역에서 두드러지는데, 특히 다산면 노곡리의 경우 인물신으로써 조선 세조의 셋째 아들인 德城君의妃를 덕성궁이라고 일컬으면서 부신으로 모신다. 쌍림면 평지리와 용2리 반룡의 경우 후사 없이 재산을 마을에 헌납하고 죽은 이에 대해 동제 때 별도로 제사를 지내주는 사례가 있기도 하다.

2. 제관선정방식과 금기

제관을 선정하는 방식은 대내림 방식이 가장 우세하다. 유형별 양상은 대내림 2곳, 생기복덕 3곳, 나머지 기타 6곳은 연령순, 순번제, 마을 이장 당 연직, 노인회 선출, 노인회 지명 등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생기복덕 3곳 중 2곳(쌍림면 용2리 반룡, 우곡면 포2리 갯골)을 비롯하여 기타 6곳 중의 4곳(쌍림면 평지리, 우곡면 포2리 후동, 개진면 양전2리 내동, 다산면 노곡리)은 예전에 대내림을 했던 곳이다. 따라서 개진면 생리와 쌍림면 월막리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대내림을 통해 제관을 선정했다. 그런 점에서 고령지역 동제의 제관선정방식은 대내림 방식이 가장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내림 방식은 대잡이가 서낭대를 잡고 풍물을 쳐 신을 내리게 하여 그 신으로 하여금 직접 제관 집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풍물을 쳐서 신을 내리게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풍물굿형 동제로 분류된다.¹⁵⁾ 하지만 전형적인 풍물형 동제로 간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풍물은 대내림 과정과 신의 이동 때만 사용되며, 실제 동제를 거행하는 동안에는 일체 연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제의 가장 핵심적인 행제 과정에서는 일체 풍물이 이용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고령지역의 동제는 제관선정에서는 소란한 풍물굿형과 강신을 위주로 하는 무속형이 결합되어 있고, 행제 과정에서는 정숙한 독축고사형이 중심을 이룬다고 하겠다.

흥미로운 점은 서부 산간지역일수록 제관선정방식에서 대내림 방식이 많지 않고 반대로 평야지역에서 더 강한 전승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과거로 소급할수록 대내림 방식이 많고, 현대로 올수록 약화된다. 쌍림면 평지리나 용2리 반룡 마을에서도 예전에는 대내림으로 제관을 선정하였다는 것은 그 단적인 예다.

15) 손우승은 우곡면 봉산1리 새가지 마을의 동제를 참여관찰한 결과 대내림 방식의 제관 선정을 전형적인 풍물굿형이라고 하였다. 손우승, 앞의 글, 32면.

금기사항 또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네 길과 제관 집 입구 등에 뿌리는 황토를 ‘금토’라고 부르는 것이나, 선정된 제관들이 각종 부정을 피하고 목욕재계 등을 통해 정성을 드리는 것을 ‘정신드린다.’고 하는 점도 특이하다. 특히 다산면 노곡리에서 보이는 제관들의 ‘석달 가리기’, ‘일 년 가리기’ 등은 제사 후에도 상당기간 금기를 지속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 제물의 종류와 祭日

제물 마련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핵심되는 제물로서 생돼지를 희생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며, 기타 제물들은 주로 ‘건장’을 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돼지를 주요한 동제의 희생으로 사용하는 점은 산신을 동제로 모시는 지역들의 공통점이라고 하겠는데, 오늘날에도 제물로 돼지머리만큼은 반드시 준비하는 것은 그런 맥락이라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고령지역의 동제는 경북 서북부의 소백산맥 지역과 유형적으로 흡사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동제를 마친 후 돼지 머리 부분과 턱, 발, 꼬리 등 특정부위를 산신에게 바친다는 점은 매우 특이하다. 이는 일종의 동신께 바치는 헌식이라고 하겠는데, 아예 獻食處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동제의 제물로서 건어물을 이용한다는 점 역시 타 지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점이다.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이는 일반 제사와 같다고¹⁶⁾ 하는 것으로 보아 가정의 조상제사나 마을제사가 갖는 공통되는 제사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삼탕,¹⁷⁾ 피문어(말린 문어), 합자(홍합의 일종)와 같은 제물의 사용

16) ‘건장’을 봐서 건어물을 이용해 삼탕 등을 준비하여 동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곡면 봉산2리 봉양, 쌍림면 용2리 반룡, 다산면 노곡리 등 대부분 지역의 제보자들이 집에서 지내는 제사(기제사)와 흡사하다고 하였다.

17) 이 때의 삼탕은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의 기제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肉湯, 魚湯, 蔬湯의 3탕과는 다른 개념이며, 명태, 문어, 홍합, 오징어, 자반조기 등 마른 해

은 아주 독특하다고 하겠다.

제일은 음력 정월 대보름이 대부분이다. 이는 다른 지역과 크게 구분되는 특징이라고는 볼 수 없다. 개진면 생리 송골마을의 경우 예전에는 5월 단오에 지냈다는 것은 예외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진면 양진2리 내동마을은 음력 선달 그믐날로 제일을 바꾸었는데, 이는 동제의 전승 유지를 위한 주민들의 자구책으로 여겨진다. 오늘날 가정의 기계사 시각이 기일 첫사에서 기일 저녁으로 바뀌는 것과 흡사하게 동제의 제일과 시각도 時俗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4. 行祭 방식

제사를 지내는 방식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정숙형의 유교식 독축고사 방식으로 지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한문으로 된 축문의 독축에 어려움이 있어 축문을 한글로 옮겨 적는다거나 축문 없이 정성으로 대체하는 등의 경향이 있으며, 쌍림면 용2리 반룡에서 보다시피 주민들의 동제 참여 폭도 넓어져서 동제가 秘儀形에서 開放形으로 바뀌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곡면 노2리 서우재 마을에서처럼 축문을 소지 사르기와 함께 반복하여 여러 번 낭독하는 것은 유교식 동제의 전형적인 특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축문의 낭독을 燒紙와 동일한 의미로 여기던 전통이라고 하겠다.¹⁸⁾ 개진면 생리의 경우 축문을 대신하는 걸개글은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2당 체계로 이루어진 동제가 대부분이라 행제 방식 역시 신격이 높은 동

산물을 이용한 것으로 반드시 3가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18) 이와 비슷한 사례는 충청도에서도 많이 보고되는데, 마을에 따라 3회·7회·9회를 반복하기도 하고, 드물게는 21회 혹은 100회를 낭독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강성복, 앞의 논문, 172~173면 참조.

네의 주신께 먼저 제사를 올리며, 뒤에 올리는 제사는 거리제나 용왕제가 된다. 따라서 주요 제물인 돼지 역시 주신께 먼저 봉헌한다. 다만 덕곡면 노2리 서우재에서는 먼저 지내는 '상생기'에는 제사의 사실을 알리는 정도에 그치고, 뒤에 지내는 '하생기'에 생돼지를 통째로 올리는 등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색다르다고 하겠다. 그리고 노곡리의 덕성궁은 산신이 아닌 부신이지만 주민들의 인식에는 거의 주신에 버금가는 존재라 하겠다.

5. 영험담 및 변화양상

제당의 축소, 제관선정의 변화, 축문의 폐지 혹은 국문화, 비의형에서 개방형으로의 행제방식 변화, 제일의 변화, 희생을 비롯한 제물의 간소화, 금기의 약화 등은 오늘날 대부분의 동제에서 확인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제의 전승이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고 있으며, 어떤 마을에서는 다시 복원되는 경우들도 있다.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절로 인한 후환을 겪으면서 복원의 과정을 거친 예들이 많다. 쌍림면 용2리 반룡 마을이나 개진면 생리 마을이 단적인 예다.

대체적으로 오늘날까지 동제가 지속되고 있는 곳은 동신의 영험을 주민들이 크게 입은 곳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고령지역의 경우 동제의 지속은 마을사회가 직면하는 현대 도시산업화 과정의 정도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마을을 관통하는 큰 도로가 없고, 도시와의 거리가 멀고, 지리적으로 자연재해의 부담이 큰 그런 곳에서 동제가 비교적 잘 전승되고 있다. 대신 그 반대인 곳에서는 전승력도 급속히 약화되고, 이미 단절된 사례가 부지기수다. 이는 현재까지 동제가 전승되는 11개의 마을들이 위치한 곳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들은 모두 국도에서 떨어진 곳이며 지리적으로 오지에 가깝다. 특히 가장 왕성한 전승력을 보이는 우곡면의 4개 마을은 모두 낙동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다.

V. 결론

고령지역의 동제는 전체적으로 古形에 속하는 유형으로 분석된다. 그것은 대상신의 성격에서부터 제당의 종류, 제관선정방식, 희생의 처리 등에 이르기 까지 아주 다양한 국면에서 확인된다. 고령지역 동제가 갖는 고풍의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신의 성격이 산신이다. 동제의 유형에는 주신이 무엇인가에 따라 산신형, 서낭형, 국수형, 장군형, 부군형, 용신형, 골땃이형, 장승형 등이 있는데, 이들 중 산신형이 가장 고풍이며, 다른 것들은 산신형의 변형에 해당한다. 산신형 동제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소백산 줄기를 따라 분포한다.¹⁹⁾

둘째, 제관선정방식이 대내림을 많이 이용한다. 대내림을 통한 제관선정방식은 경북의 경우 안동지역과 달성지역, 그리고 대구지역에서 많이 확인된다. 그리고 경남에서는 창녕지역에서 많이 분포한다. 안동지역의 경우 청량산 일대에 전승되고 있는 공민왕신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²⁰⁾ 안동시 하회마을에서는 별신굿을 개최할 때 그 개최 여부를 山主가 서낭당에서 대내림을 통해 신의 계시를 받는 절차가 있다.²¹⁾ 달성지역과 창녕지역의 경우 거의 전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²²⁾ 대구는 특히 동부지역에서 확인된다.²³⁾ 대내

19) 경북지역 동제의 유형 분포에 대해서는 이기태, 「경상북도의 마을신앙의례 분포와 문화권역」, 『민속학연구』, 국립민속박물관, 2007 참조.

20) 이에 대해 한양명은 대내림을 통해 제관을 선출하는 방식은 공민왕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한다. 한양명, 「청량산일대 공민왕신앙의 분포와 성격」, 배영동 외, 『고려 공민왕과 임시수도 안동』, 안동시·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4, 194면; 한양명,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동제」,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신앙』, 2007, 71~77면.

21) 임재해, 『안동하회마을』, 대원사, 1992, 113면.

22) 달성지역의 사례들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 제8권 경상북도편, 2004, 417~458면 참조; 창녕지역의 사례들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 제7권 경상남도·부산편, 2003, 1357~1378면 참조.

23) 대구지역의 사례들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 제8권 경상북도편, 2004,

림 혹은 신내림을 통해 동제의 제관을 선출하는 방식은 생기복덕을 통하는 방법보다 분명 고행에 속한다. 대내림 방식은 엄밀히 말해 풍물굿형과 강신무형이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제관 선정은 대내림을 통하지만 동제의 핵심적 행제 과정은 정숙한 독축고사형이 중심을 이룬다. 동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제 과정에서는 일체 풍물이 금지된다. 따라서 고령지역의 동제는 풍물과 무속 그리고 유교가 뒤섞인 혼합형 동제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돼지를 주요한 희생으로 하는 산신제의 전형을 이루며,²⁴⁾ 산신을 위한 獻食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제단 근처에 헌식처를 별도로 마련해두고 상징적 의미를 갖는 머리나 턱 혹은 발 등을 특별히 헌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지역의 경우 제물의 몇 가지를 제단이나 그 주위에 남겨두는 것과 비교할 때 역시 독특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희생 이외의 제물로 건어물의 사용이 대중을 이룬다. 이를 주민들은 간단히 ‘건장보기’로 표현하는데, 이에 속하는 건어물의 종류 또한 특별하다. ‘피문어’, ‘합자’ 등이 그 단적인 예다. 이런 건어물의 사용은 가정의 기제사에서조차 흔히 사용되는데, 그런 점에서 고령지역 제사문화의 특징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와 흡사한 동제의 사례는 김천시 감문면 남곡리에서 확인된다.²⁵⁾

여섯째, 서부 산간지역과 중동부 평야지역 사이에 동제 전승의 지역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는 제관선정방식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산간지역일수

461~468면 참조.

24) 돼지를 희생으로 사용하는 산제 사례는 이기태, 「동제의 상징체계 연구—문경군 동로면 수평리의 ‘산제’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6 참조.

25) 이곳은 산간지역이지만 마른 가오리, 마른 대구, 마른 문어, 마른 오징어, 마른 홍합, 김, 미역, 다시마 등을 제물로 사용한다. 이 지역에 대한 조사보고는 조정현, ‘김천시 감문면 남곡리 동제’,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신앙』, 2007, 43~49면 참조.

록 대내림의 전승이 약하고, 반대로 평야지역에서 강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과거로 소급할수록 대내림이 많고, 현대로 올수록 약화된다. 대내림방식은 지역적으로 보아 달성·창녕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데, 그런 점에서 대내림방식은 고령·달성·창녕지역이 하나의 권역을 형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주지하듯이 고령지역에는 고형의 문화들이 많이 전승되고 있다. 대가야의 유적들을 포함한 유형문화재에만 국한되지 않고 구비문학과 같은 무형문화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역문화들이 오랜 역사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고령 문화가 갖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는데, 동제 역시 그런 맥락과 함께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제까지 동제와 같은 무형문화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해 그 실제와 양상들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글은 그런 점에서 고령지역 전통문화의 특징을 밝히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향후 주변지역과의 비교 등을 통해 동제의 지역적 특징이 다각적으로 연구되어 고령문화에 대한 보다 넓고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성복, 「조선후기 충청지역의 동제 연구—동제 관련 촌락자료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고령문화사대계① 역사편』, 2008.
- 고령군지편찬위원회, 『고령군지』, 1996.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 제7권 경상남도·부산편, 2003.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 제8권 경상북도편, 2004.
- 김도현, 「강원도 영동 남부의 고을 및 마을신앙」,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재웅, 「고령 지역의 설화의 전반적 고찰」, 『고령지역의 역사와 문화』, 고령문화원·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97.
- 김재웅, 「쌍림면 용2리 당산제」, 『한국의 마을신앙』 현장조사보고서 하권, 국립민속박물관, 2007.
- 김태곤, 『한국민간신앙연구』, 집문당, 1987.
- 박호원, 「한국 공동체 신앙의 역사적 연구—동제의 형성 및 전승과 관련하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손우승, 「우곡면 봉산리 새가지 마을(鳥枝洞) 산제」, 『한국의 마을신앙』 현장조사보고서 하권, 국립민속박물관, 2007.
- 안태현, 「문경의 마을공동체신앙」, 문경새재박물관, 『문경민속지—민속신앙』, 민속원, 2007.
- 이관호, 「내포지역 마을신앙의 전승과 변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이기태, 「동제의 상징체계 연구—문경군 동로면 수평리의 ‘산제’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6.
- 이기태, 「경북의 마을제당과 제의의 특성」,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제당』 제8권 경상북도편, 2004.
- 이기태, 「경상북도의 마을신앙의례 분포와 문화권역」, 『민속학연구』, 국립민속박물관, 2007.
- 조정현, 「김천시 감문면 남곡리 동제」,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신앙』, 2007.
- 한양명, 「청량산일대 공민왕신앙의 분포와 성격」, 배영동 외, 『고려 공민왕과 임시수도 안동』, 안동시·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04.
- 한양명, 「안동시 도산면 가송리 동제」,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의 마을신앙』, 2007.

Abstract

Transmission Aspects and Features of Community Beliefs(Dongje) in Goryeong Area

Kim, Jae-Ho

This study, based on the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fieldwork in the Goryeong area, is about community beliefs(Dongje) which has been transmitted so far in the area. Followings are the aspects of community beliefs(Dongje).

Firstly, the character of the object god is a mountain god. Dongje of mountain gods has been practiced in the area of the Sobaik Mountains and is an old Korean cultural practice.

Secondly, the way an officiant is appointed is to use the community flags or to depend on gods' choice, which is manifested on god poles.

Thirdly, the key process of Dongje is reciting a ritual prayer in the Confucian style. The Dongje of the Goryeong area can be referred to as a mixture of folk music, Shamanism and Confucianism.

Fourthly, the Dongje consists of a typical worship of mountain gods for which a swine is offered. They clearly feature an offering of sacrifice for the mountain gods.

Fifthly, dried fish are offered other than the main sacrifice, which conforms to the style of ancestor worship in the Goryeong area.

Sixthly, there are distinguishable differences in the aspects of Dongje between the western mountainous area and the mideastern plain area. The way an officiant is appointed clearly shows such differences in the way to depend on gods' choice is not common in the mountainous area but common in the plain area. The method to depend on gods' choice was more commonly used in the past and has been getting less common in modern times.

A lot of old cultural practices have passed down in the Goryeong area. There are rich old material and non-material heritages which

range from the remnants of the Daegaya Dynasty to folklore. The Dongje is a type of heritage which conforms to such cultural traditions.

Key Word

Goryeong(高靈), Community beliefs(共同體信仰), Dongje(洞祭), Daegaya Dynasty (大伽耶), the mountain gods(山神)

- 논문투고일 : 2010.6.22. 심사시작일 : 2010.7.1. 심사완료일 : 2010.7.10.